

올림픽 2년도 안 남았는데... 개·폐회식장 공사 중단 위기

사업비 200억 부족한 상태
시공사 대립산업 포기 검토
내년 9월 완공 차질 불가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들어서는 올림픽플라자 본 공사가 사업비 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공사인 대립산업은 이달 중 작공 예정인 본 공사 불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은 588일 앞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턱없이 낮

은 사업비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만약 대립산업이 공사를 포기할 경우 대회조직위는 또다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한달 가까이 공기가 지연돼 목표로 했던 2017년 9월 완공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업비 확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시공사 선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는 지난해 올림픽플라자 총 사업비로 1,897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36%를 삭감한 1,226억원만 승인했다. 이 가운데 순수 개·폐회식장

건설비용은 940억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대로라면 개·폐회식장 사업비는 약 200억원이 부족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안이 충분히 예견됐다는 데 있다. 정부의 사업비 대폭 삭감 이후 조직위는 지난해 6~7월 두 차례 시공사 공모에 나섰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무해 모두 유찰됐다. 사업비 부족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자 조직위는 결국 대립산을 설득해 턱키방식으로 공사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때에도 약 200억원에 달하는 사

업비 부족 문제가 거론되자 업체 측은 추후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고려해 본 공사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 최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년 동안 2조2,000억원에 묶여 있는 조직위의 총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업비 부족으로 전반적인 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교량공사, 안전사고 시공사·하청업체 대표 징역 6월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감독 공무원 등 12명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시공사 대표 정모(51)씨와 하청업체 대표 이모(53)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현장소장 강모(45)씨 등 2

명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또 시공회사 등에게 벌금 500만원, 춘천시 감독 공무원 김모(41)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8월 지자체 발주 교량공사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류재일기자

양양공항 26억 공사 전국발주 강행 논란

도내 업계 ‘지역제한’ 요청 외면

도내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제한을 발주처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최근 발주한 ‘양양공항 활주로 재포장 및 제방빙장 설치공사’에 대한 개찰을 지난 30일 완료했다.

이 공사의 추정가격은 26억2,342만원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역제한 발주가 가능하지만 공사 양양지

사는 전국으로 발주했었다. 지역제한이 가능한 규모의 공사인데도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규정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가 발주처에 지역제한으로 재공고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발주처는 결국 외면했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도 전국 경쟁입찰로 발주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인력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공공사 발주처가 이처럼 지역업체 참여를 외면할 경우 지방 건설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도 정치인사명단

▼국장급 전보 승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재난안전실장·승진) △의회사무처장 유재봉(총무행정관·인재개발원인재개발정책관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보건의료체육국장 박흥영(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 승진) △녹색국장 조인목(행정개발본부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박병진(동계올림픽본부건설추진단장) △총무행정관 박근영(경제진흥국전략사업과장) △기획조정실기획관 박귀백(승호) (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재난안전실장직무대리 김길수(기획조정실예산과장) △행정개발본부장직무대리 이승섭(경제진흥국사회적경제과장) △동계올림픽본부건설추진단장 이규운(동계올림픽본부건설사업과장) △환경동계올림픽본부장직무대리 김성삼(환경동계올림픽본부장직무대리) △기획조정실기획과장

▼과장급 전보 승진

△총무행정관실인재개발추진단장 지순식(녹색국장실예산과장) △총무행정관실 서동원(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기획조정실예산과장 김광수(의회사무처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조정실예산과장 알맹남(기획

조정실기획과장) △기획조정실기획과장 이재석(의회사무처문화관광전문위원) △글로벌투자총무국국제교류과장 정기익(총무행정관실AOA총화추진단장) △글로벌투자총무국대외협력지원과장 신주희(의회사무처경제건설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김봉현(기획조정실교육법무과장) △농림축산식품국농업기술지원과장 고영진(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고영진(동계올림픽본부총괄기획과장) △의회사무처농림수산전문위원 정상호(환경동계올림픽본부기획과장) △의회사무처경제건설전문위원 이병현(문화관광

체육국체육과체육진흥담당장) △농업기술원미대농업교육원장 박대인(동계올림픽본부특수교육과장)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고석두(인재개발원관장) △환경동계올림픽본부기획정책과장 송영선(환경개발본부기획정책과장) △행정개발본부기획정책과장 대순주(행정개발본부인재개발지원부) △경제진흥국경제정책지원팀장 조경태(혁신센터) 과장 장준호(투자유치본부투자유치2부) △의회사무처사회문화전문위원 전진표(글로벌투자총무국국제교류과장직무대리) 승진)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권중호(서울본부장) △강원도립대학

교사무국장 이태하(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직무대리) △서울본부장 이종근(농정국농정과장직무대리) △총무행정관실감정인재개발지원팀장 정은진(총무행정관실) △경제진흥국지원개발과장원전 드라전(전용팀) 경제진흥국지원개발과 △기획조정실교육법무과장전인 김양제(황성군) △경제진흥국사회적경제과장 최봉걸(삼척시) △동계올림픽본부총괄기획과장 변경권(양양군) △대외협력담당관 황승국(평창군) △환경성안전출 김상희(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총무행정관 실어승(총무행정관실) △철원군

출력장) △양양군전출 박상민(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재난안전실장직무대리 임찬희(농정국농정지원과장) △농정국농정지원과장 박성준(농산물유통진흥과) △유동원(과장) 경제진흥국농정과장 △농업기반과장 이영원(감자중자진흥원) △농업기술원(관과장) △신림관리과장 심진규(신림개발연구원) △동계올림픽본부인재개발원인재개발정책관 박귀백(총무행정관실) △건설교통과장 전재실(글로벌투자총무국) △인재개발원(과장) △실사사업과장 연구복 △리도(과장) △철원군

15면에 계속

도 실국장·부단체장 프로필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56)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문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강릉 출신. 강릉제일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 도 재난안전실장, 강릉부시장, 도 지자체행정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심옥순씨와 1남1녀.



유재봉 도의회사무처장

유재봉(58) 도의회사무처장은 “소통·상생을 앞세워 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강원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 철원 출신. 철원고를 졸업. 총무행정관,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정책과장, 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 공보지원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이순자씨와 1남1녀.



전대경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정책관

전대경(59)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정책관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원주 출신. 대성고, 한국방송통신대, 한림대 대학원을 졸업.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국장, 도 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임명주씨와 2남.



조인목 녹색국장

조인목(58) 녹색국장은 “도가 자랑하는 청정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양구 출신. 강원고, 강원대, 고려대(행정학 석사)를 졸업.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도인재개발원장, 복지정책과장, 안행부 지자체행정과 서기관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윤은경씨와 1남1녀.



박병진 건설교통국장

박병진(58) 건설교통국장은 “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에 자원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욕. 강릉 출신. 강릉농공고를 졸업. 동계올림픽본부 건설추진단장, 도 지역도시과장, 시설1과장, 개발사업과장, 도시토목담당, 도로시설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전순자씨와 2남.



박경연 총무행정관

박경연(54) 총무행정관은 “인적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도정이 민선 6기 후반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 홍천 출신. 성수고, 강원대를 졸업. 도 전략산업과장, 동계올림픽본부 특육성과장, 도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 도 지자체행정담당, 민간협력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박병준씨와 1남1녀.



백승호 기획관

백승호(58) 기획관은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의회의와 의회협력력을 통해 도정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 철원 출신. 신철원중고를 졸업. 강원청정조형혁신센터 사무처장, 사회적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교육연구실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최명숙씨와 2남.



김길수 재난안전실장

김길수(56) 재난안전실장은 “안전 분야에서 도가 전국 제일의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약속. 영월 출신. 영월고, 안동대, 강원대 대학원을 졸업. 도예산과장, 화천부군수, 도 행정담당, 인사담당, 고시훈련담당, 인재개발원 서무관리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전미숙씨와 1남2녀.



이승섭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56)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춘천 출신. 춘성고, 강원대,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 사회직경제과장, 특구육성과장,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주인숙씨와 1남1녀.



이규운 동계올림픽본부 건설추진단장

이규운(58) 동계올림픽본부 건설추진단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각오. 홍천 출신. 홍천고,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 동계올림픽본부 실사시설과장, 시설1과장, 도 도시토목담당, 기술감사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이규옥씨와 1남1녀.



김성삼 환경동계본부장

김성삼(58) 동계올림픽본부장은 “똥으로만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 비전을 현실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 강릉 출신. 주문진초, 한국방송통신대, 강릉대 대학원을 졸업. 수산정책과장, 해양수산수산지원센터소장, 어업지원담당, 수산정책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정숙씨와 1남1녀.



김상호 황성부군수

김상호(58) 황성부군수는 “자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고 약속. 황성 출신. 춘천제1고를 졸업.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황성군 기획과장, 황성군 새우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정책과장, 청정환경사업소장, 서원면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명선씨와 2녀.



어승담 평창부군수

어승담(52) 평창부군수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주민소득 증대를 통해 평창은 물론 도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각오. 고성 출신. 속초고, 동우대를 졸업.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인력부장, 도 지역계획담당, 경제정책담당, 성장동력담당, 과학산업 담당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명선씨와 1남1녀.



박종원 철원부군수

박종원(56) 철원부군수는 “도내 제1의 곡창지대이며 통일 한국의 중심지인 철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원주 출신. 휘문고, 단국대를 졸업.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 통합부장, 도 감사기획담당, 서무담당, 교육복지담당, 평가관리담당 등을 역임.



박상민 양양부군수

박상민(58) 양양부군수는 “현안 사업을 잘 풀어내고, 민선 6기 공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장을 보좌하겠다”고 약속. 양양 출신. 양양고, 한국방송통신대, 강릉원주대 대학원을 졸업. 도의회 홍보담당관, 도 입법지원담당관, 양양군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안순옥씨와 2남.

“동서고속화철 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방문서 밝혀

도, 조기착공 건의문 전달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최대 속원 사업이자 박근혜 정부의 강원도 제1대 선공약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최문순 지사가 동서고속철 예비타당성조사의 조기 통과를 건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지사는 에너지신산업현장 시찰차 홍천 북방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방문한 박 대통령에게 시설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동서고속철 예비타당성 통과를 통한 사업 착공을 요청했다.

예타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서고속철은 현재 AHP(정책적 분석)이 진행중으로 사업을 공약한 박 대통령과 정부

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 건의문을 전달하고 사업 해결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과 동서고속철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마을 주민과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활용해 생산한 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주민에게 공급해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감축,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다.

2015년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준공됐으며 홍천군 일대에서 수집된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하는 바이오가

스화시설, 하수·분뇨처리 찌꺼기 등을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 태양광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박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그간 주민들이 기피하던 환경시설을 에너지생산 등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납비현상을 완화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개선과 소득창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관광명소화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과 세계시장 진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매곡리 주민들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조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 대통령에게 명예주민증을 전달했다.

▶ 관련기사3면

홍천/유주현·진민수·김여진

평창동계올림픽 11조3771억 투입

3개 분야 49개 사업 국비 7조5216억 승인 원주~강릉철도 3조9333억 등 SOC 비중 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총 11조 37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도는 정부로부터 경기장 건설과 접근도로망 확충, 지원 시설 건설 등 3개분야 49개 사업에 국비 7조5216억원, 지방비 4314억원, 조직위 등 3조4241억원 등 총 11조 3771억원의 사업비를 승인받았다.

경기장 건설 분야는 중봉알파인경기장을 비롯해 슬라이딩센터, 강릉스

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센터 등 현재 신설 중인 6개 경기장에 7114억원이 투입된다. 또 보완공사가 진행중인 강릉컬링센터와 스키보드경기장, 용평알파인경기장에 925억원,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스키점프대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경기장에 4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철도와 공항, 도로 등 접근도로망 확충을 위해 양양공항 8억원, 원주~강릉

철도 3조 9333억원, 경의선-공항철도 개선 3031억원, 영동고속도로 IC개선 175억원,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1조 5978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5399억원을 투입해 각 경기장 진입을 위한 16개 노선의 진입도로를 건설한다.

선수촌과 미디어촌, 폐회식장, 국제방송센터 등 올림픽 지원시설 건설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마운틴클러스터에 건설하는 평창지역 선수촌에 1800억원, 코스타클러스터에 들어서는 강릉지역 선수촌에 2146억원, 중봉 대체선수촌 건설에 9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창선수촌은 용평리조트, 강릉선

수촌은 LH, 중봉대체선수촌은 현대·송담이 시행한다.

또 코스타클러스터에 3822억원을 투입해 미디어촌을 건립하며, 올림픽 폐회식장 건립에 1226억원, IBC(국제방송센터) 건립에 94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급수체계 구축사업에도 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원주~강릉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도 동계올림픽 사업으로 포함시키다보니 사업비가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장과 폐회식장, 경기장 진입도로, 선수촌 등 올림픽 필수시설만 놓고 보면 사업비는 2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백오인

강릉 주문진항~국도 연결 교차로 신설

18억 투입 올해 사업 발주 내년 완공 예정 읍사무소·주문진항 최단거리 접근로 확보

도내 최대 관광항인 강릉 주문진항로 진출입하는 국도 교차로 신설이 추진돼 주문진을 일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7호선 주문진읍 청사 진입부에 평면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차로 설치공사는 총 18억원

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중 완공할 예정이다.

또 주문진읍 청사 진입부 국도를 양방향 3차로로 확장해 안전한 대기차로를 확보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차로가 완공되면 국도 인근 주문

진읍 청사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고 국도 7호선에서 주문진항까지 최단거리 접근로를 갖추게 된다.

주문진읍 청사의 경우 지난 2008년 완공돼 국도 7호선과 접속돼 있으나 교차로 등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청사에서 강릉방면으로 가려면 복잡한 시내를 경유하거나 양양 방면으로 1.5km 가량 운행한 뒤 U-턴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최근 수년동안 해당 구간의 교차로 설치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수차례 주민협의를 거

쳐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대영 시의원은 "최근 주문진항 수산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주말 및 휴가철 관광객이 폭증하고 동계올림픽을 맞아 수송망 확충을 위해 해당 구간의 교차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체 교차로가 검토되기도 했으나 사업비(95억원)와 공사기간(5년) 과다 등의 이유가 발생,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평면 교차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릉/구정민 koo@kado.net

인사

강원도청

◇과장급 전보
△지순식 일차

리추진단장△서동엽 총무행정관실△김광수 예산과장△엄명삼 세정과장△이계석 회계과장△정기욱 국제교류과장△신주호 레고랜드지원과장△김봉현 문화예술과장△황영수 농정과장△고영선 도의회 홍보담당관△전상호 도의회 농림수산전문위원△이병한 도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박대인 미래농업교육원장△고석두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송영선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배순주 동자청 기획정책부장△정준호 강원창조경제센터△전진표 도의회 사회문화전문위원△권중호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이중

근 서울본부장△최봉걸 사회적경제과장△변정권 총괄기획과장△김왕제 교육법무과장△최승국 디엠제트박물관장△임찬희 방재과장△석성균 축산과장△계재철 유통원에과장△이영일 농업기반과장△최돈이 산림소득과장△심진규 산림관리과장△전재섭 시설관리과장△연규복 설상시설과장△곽상균 수산정책과장△고만식 어업지원과장△허성재 농산물원종장장△변정탁 설악산식도추진단장

◇과장급 승진

△김완식 감자종자진흥원장△안승일 산림개발연구원장△최준석 항공해운기획단장△이경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정승진 특구육성과장△홍남기 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최기웅 2018조직위 파견△배만길 2018

조직위 파견△김상현 환경과장△김형욱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임상현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장

교육부

◇서기관 승진
△강원대 김정

열·김성겸

◇기술서기관 승진 △강릉원주대 강경호

도소방본부

◇지방소방정 전보 △이동학 강

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박태원 " 종합상황실장 △정효수

속초서방서장 △강윤종 영월소방서장 △김상철 인제소방서장

◇지방소방령 승진 △윤재용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승진 △원인명 춘천지사

장

◇2급 승진 △구자춘 춘천지사△양경옥 강릉지사

◇2급 전보 △백충상 태백정선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지덕림 강원본부장

△오국렬 강원영동지사장
△최용훈 강원본부 검사1부장

보훈복지의료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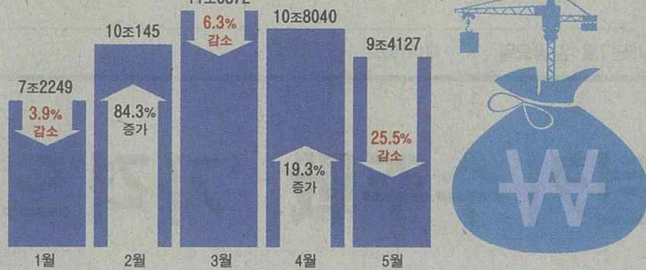
◇1급 승진 △박준원 미래

전략실△김민숙 행정지원실

◇2급 승진 △김동휘 미래전략실△정진복 보훈재활체육센터△이희선 중앙보훈병원

강원우정청 5급 이하·보훈복지의료공단 3급 이하
도소방본부 지방소방령 이하 인사명단 kado.net

1~5월 전년 대비 건설수주(경상)
단위: 억원



‘들쭉날쭉’ 건설수주... 불확실성 확대

한달 단위로 증감 반복... 5월 작년보다 25.5% 감소

올해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수주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 달 단위로 증감을 거듭하며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수주(경상)는 9조4127억원으로 전년 동월(12조6393억원)보다 25.5%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올 1월(7조2249억원)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한 이후 2월(10조145억원) 들어 84.3% 증가하며 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3월(11조6872억원)에는 한달 만에 6.3% 감소로 전환하고서 4월(10조8040억원) 들어선 다시 19.3% 늘어났다가 지난달에 또 한풀 꺾였다.

지난달 건설수주가 감소한 것은 한·미·공항, 도로·교량 등 토목부문(1조8677억원)이 9.2%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지만 주택, 관공서 등 건축부문(7조5450억원)이 31.0%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2조1208억원, -13.7%)과 민간부문(7조2418억원, -28.1%)이 동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당초 건설수주는 상반기까진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한 만큼 토목·공공부문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건설수주가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재정집행 여력이 떨어지는 하반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건설수주가 한 달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에 따라 건설수주가 감소 우려를 딛고 선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SOC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건설투자는 내리막으로 방향을 굳힐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상 최대 수주고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2월과 8월을 제외하곤 건설수주가 일제히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방향성이 확실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증가세가 예상됐던 상반기에도 건설수주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기성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5월 건설기성(불변)은 8조5540억원으로 전년 동월(7조1152억원) 대비 20.2% 증가했다.

작년 6월(1.1%) 이후 1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체 산업생산은 1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증가했다.

2월과 3월 각각 0.7% 증가하고서 4월(-0.8%)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으로, 작년 2월(1.9%)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박경남기자 knp@

“춘천 교량 보수 공사중 사망사고는 인재”

안전관리·감독 소홀... 법원, 업체대표·현장소장 등 징역·금고형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의 한 교량 보수 공사 중 몽골인 2명이 10m 아래 강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예견됐던 인재라는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4일 오전 8시25분께 춘천시 서면 오월교 교량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몽골인 L(30)씨와 M(42)씨 등 2명이 10m 아래 춘천호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L씨는 숨졌고, 함께 추락한 M씨는 실종 8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몽골인 근로자 2명은 교량 난간과 연결된 10m 길이의 작업 발판에서 파쇄한 콘크리트 잔해물을 상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오월교 보수공사를 맡은 공사 총책임자 이모(53)씨, 현장소장 강모(45)씨, 하도급 업자 정모(51)씨와 최모

(50)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김모(41)씨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임자 이씨와 하도급 업자 정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현장소장 강씨와 최씨에게 각각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 4명에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공무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나 작업 발판 지지대 설치의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난간의 발 끝막이 판을 미인증 분진보호망으로 대체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